



즉시 배포용: 2022년 3월 1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다루기 위한 법안에 서명
법안(S.812B/A.2035B), 직장 내 성희롱 민원에 대한 기밀 핫라인 설정
법안(S.3395B/A.2483B), 주정부와 모든 공공 고용주를 인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법안(S.5870/A.7101),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인사 기록의 공개 금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위한 생식 접근권을 보호하는 등 주지사의 형평성 의제 보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다루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812B/A.2035B)은 직장 내 성희롱 민원에 대한 수신자 부담 전화 핫라인을 설정합니다. 법안(S.3395B/A.2483B)에는 인권법의 규정에 따라 주정부와 모든 공공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법안(S.5870/A.7101)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 기록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 역사의 달 기념식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명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첫 날부터, 올버니를 청소하고, 괴롭힘과 학대의 문화를 바꾸고, 안전하고 존경스러운 직장을 확보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 없이 일할 권리가 있고, 저는 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 대한 안전, 존엄,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성희롱 문제 해결은 Hochul 주지사의 형평성 의제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양성평등위원회(Council on Gender Equity), 낙태 및 산전 및 산후조리,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s)에 대한 지원 증가, 육아 접근에 대한 투자 그리고 모든 SUNY 캠퍼스에 무상 보육 도입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입법부에 이번 회기에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812B/A.2035B 법안에 따르면 인권부는 직장 내 성희롱 민원에 대한 수신자 부담 전화 핫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많은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핫라인의 기능은 고소인과 법적 권리를 알리고 개별화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언하는 숙련된 변호사를 연결해 줄 것입니다.

법안 S.3395B/A.2483B는 주정부가 선출직 공무원 또는 판사의 직원을 포함하여 행정, 사법 및 입법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주로 간주되며 인권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뉴욕의 광범위한 폭행 방지 규정이 공공 및 민간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안 S.5870/A.7101은 직장 차별 피해자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한 인사 기록의 공개가 인권법상 보복 조치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법은 고소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 기록의 공개는 보복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대법원에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법무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새로운 조항에 따른 불법 보복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Alessandra Biaggi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사건 이후 뉴욕 시민들은 성희롱 생존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학대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처사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괴롭힘 없는 뉴욕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입니다.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인을 위한 무료 비밀 핫라인을 설치하는 S.812B 법안 후원자로서, 이 법안이 뉴욕의 성희롱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으로 서명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성희롱 생존자들이 공공연히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며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뉴욕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drew Gounarde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대와 부패의 뿌리 깊은 문화는 성희롱과 차별의 생존자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행동으로 옮기고,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엄청난 보호를 위해 싸웠고, 또 쟁취해 온 치열한 지지자들과 생존자들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Yuh-Line Niou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제 동료들과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성희롱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고용주가 성희롱 정책, 직원 교육, 그리고 어떤 형태의 괴롭힘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불만과 조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뉴욕은 주 직원들이 성희롱에 취약해질 수 있는 허점을 메우고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자원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원에서 이 법안들을

후원한 것이 자랑스럽고, Hochul 주지사, Gounardes 상원의원, Biaggi 상원의원,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성희롱 작업 그룹(Sexual Harassment Working Group)과 같은 옹호 단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Jessica González-Roja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어떤 뉴욕 시민도, 어떤 여성도 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 있는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여성의 허스토리의 달에 이것을 하는 것은 특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흑인 여성이 성희롱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불균형적으로 대표되고 이러한 불만을 제기하는 여성 3명 중 1명도 그들에 대해 취한 보복 행동을 보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Gounardes** 상원의원과 함께 협력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법안의 진전을 도와준 지지자들과 오늘 법안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